

## 2017학년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7년 02월 02일(목요일) 11:00 ~ 12:0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인사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상정안건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2017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간 사 : 지금부터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권진철)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박병덕)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으로 설명함.

(최용재)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병덕)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공직협 회장 권덕창입니다.

(권덕창) 학생이 감소되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부에서도 인상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인상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악화 되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고려한다면, 중장기 대책 중에서 교육의 질 저하에 관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 대학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가 필요 (황호진) 하지만 오히려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획본부장 : 중기재정 사업비를 말씀드렸지만, 작년같은 경우 중기재정사업 예산이 180억 (최용재) 정도입니다. 2017년도 예산의 CK나 코어등의 재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일 경우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전하는 동시에 사업비 지원 축소의 속도를 늦춰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노조에서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대학노조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권덕창)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회에서도 위원장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가지 노력에 힘이 될 것 같 습니다. 어려운지 질문인지 알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 전북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박병덕) 5년 중장기 계획인데, 학생수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거점 대학 수준에서도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본부장 : 현재 348명 정도 누적하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4~5년동안 학 (최용재) 생수가 감소할 겁니다. 첫 해만 감소를 해도 향후 4년동안 학생수가 감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 사업비 따는 것은 불확실하죠. 공직협 회장이나 총장님과도 만나서 얘기를 (박병덕) 했지만은, 등록금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북대학교는 등록금이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정부 정책에 수공을 해서 등록을 인상을 안 했거나 인 하를 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같은 국립대학인데도 어떤 대학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우리 대학은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국비 보조가 확실한데, 얼마나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사무국장님 께서 답변가능하신가요. 공직협, 교수, 본부 각각에서 노력해야합니다. 같은 국립대라도 어디는 예전 수준을 인정하고, 어디는 등록금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종결 하겠습니다.

(박병덕)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  
(박병덕)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덕)

위원들 : (전원 거수)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10분 의원 모두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박병덕) 포함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2017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덕)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7년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일)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병덕)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사전에 사전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병덕) 질의 없으실 것도 같은데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 위원 분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  
(박병덕) 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덕)

위원들 : (전원 거수)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10분 의원 모두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  
(박병덕) 포함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 재정지원 사업단에 속한 교수님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의 진면에서 보면 도  
(황호진) 움이 되지만, 대학본부 재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대학 본부 부  
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요.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요.  
다음정부가 들어서면 특히 국립대학의 기본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라든지 대학회계, 물가상승률이 인상하면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우리대학 회계 세입은 줄고, 정부의 기본 지원도 아이러  
니하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을 재정지원사업으로 돌리고 있는데,  
대학구조가 왜곡 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은 아직도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많고 등록금 인상 합의까지 가는 데는 어려울겁니다.

적어도 국립대학은 기본 재정을 확대해 나가면서 정책의 기본 틀이 필요  
하고, 그런 방향으로 차기 대선 공약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국립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  
(박병덕) 을 ~~한정~~ ~~시켜야~~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산업위주로 지원해서  
역효과가 나므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같은 국립대학 내에서도 등록금 책정에 따라 예산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북대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더 해야한다는  
것을 교수회 직장협의회에서도 본부차원에서 열심히 건의해줬으면 좋  
겠습니다.

기획본부장 :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인당 평균 등록금이 9개 거점대에서 5위, 부산대 등  
(최용재) 과는 1인당 2~30만원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법령상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올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사업의 30억 정도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년  
누적적으로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평균이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거점국립대  
에서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신청 제한을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 등록금 인상에서만 찾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에서 찾아야  
(박병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프로라도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  
서는 부담이 갈 것입니다.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린 대학이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조인데, 국립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못올려주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건의해야지 뽕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  
다.

위원장 :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건  
(박병덕)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  
(박성일) 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사무국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법률 공포까지 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  
(황호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상 재정위원회 의결 순서가 안 맞지만  
의결된 것입니다.

위원장 : 규정 자체가 이미 개정이 되어서 공포 됐다고요?  
(박병덕)

재무과장 : 약간 법률상 모순이 있는데 학칙에 의하면 모든 규칙은 학무위원회의를  
(박성일) 거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별  
도의 법률이라서 훈령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를 경  
우, 학칙에 의해서 훈령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 정비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 이미 시행을 해서 직제가 생겼는데, 추인방식이잖아요. 이미 시행된 것을  
(권덕창) 추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색하긴 하네요

재무과장 :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대학의 규정은 학칙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해  
(박성일) 야 합니다,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  
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별도 재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두 개 법률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같은 경우는 국회법이 별도 있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국회법은 정부법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데, 이번 안건은 이런 식으로  
분리체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실제 학칙엔 직제가 반영이 됐지만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에  
(박병덕) 맞춰서 고치자는 거잖아요. 오늘 참석자 명부에도 현재까지 국제협력부  
본부장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바뀌기 전으로 명  
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학생처장 : 이거에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국제협력 본부장, 소통복지랑 나뉘  
(박주미) 어져 있는데, 위원회에 국제협력 본부장님은 안 오시나요?  
외국인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제협력 본부장님도 참석하셔야 할 필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재정위원회 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제순서로 지정하는 거  
(박성일) 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연계 되어 사안은 있으면 참관인으로 참석해서 발언해주고 해야 할 듯  
(박병덕) 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본 안건  
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표결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 : 예.(전원 참석 10명 가결)

위원장 :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덕) 10분 정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 1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박병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4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구종남, 권덕창, 변재욱 위원께서 수고  
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구종남, 권덕창, 변재욱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구종남, 권덕창, 변재욱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  
(박병덕)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학년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박 병 덕 (인)   
간 사 : 권 진 철 (인)   
기 록 자 : 김 미 경 (인) 

11월 9



11월 9